

다.

◎ 古建物調査(桐華寺와 銀海寺居祖庵)

石窟庵工事に 마르느 資料蒐集次 慶北淸城郡桐華寺(金堂庵의 新羅釉磚 配置方 案)와 居祖庵(木造架構手法)을 調査(七月十七日 申榮勳, 鄭明鎬 擔當)

◎ 文化財委一分科專門委 發令

七月二十二日附로 崔泳喜(常任) 鄭永鎬 孟仁在 申榮勳 金周泰의 五氏(以上 一分委)가 發令되었다.

◎ 梨大에서 遺蹟踏查

梨大博物館과 史學科에서는 共同으로 다음과 같은 豫定으로 遺蹟을 踏查하고 있는데 여러 參加한 人員은 다음과 같다. 史學科長 金成俊 秦弘燮 博物館助教 姜敬淑 史學科助教 金楡子 史學會長 金和英

安東(一直面 豊山面一帶遺蹟) ↓ 慶州(石窟庵 西面一帶遺蹟) ↓ 大邱(玄風一帶遺蹟) ↓ 南海(陶窯址) ↓ 公州(鷄龍山陶窯址及附近遺蹟) ↓ 扶餘

◎ 江原橫城郡遺蹟調査

幹事 鄭永鎬氏는 八月一日부터 四日間 橫城郡一帶의 遺蹟을 調査하였는바 內容은 如左

橫城郡廳後庭의 塔像——甲川面新垵里 三層石塔——中金里 三層石塔(東西雙塔으로 서 上基 八部神衆의 手法等 注目됨)——公振面上洞里 塔像——於仁洞의 洞窟과 坐像

※ 以上은 앞으로 本誌에 紹介되리라 한다.

◎ 忠北遺蹟調査

同人 秦弘燮 鄭永鎬 金和英 等 一行은 梨大遺蹟踏查班의 一部와 合流하여 八月十日부터 忠北一帶의 遺蹟을 調査하였는데 調査地는 다음과 같다.

槐山郡(彌勒里塔像과 寺址, 院豊里磨崖佛)——堤川郡(獅子頻迅寺址)——(忠州

市(鐵佛)——中原郡(塔坪里七層石塔과 石碑二座)——報恩郡(法住寺의 遺蹟)——永同郡(陽江面, 龍山面遺蹟)——鎮川郡(文白面石碑)——丹陽郡(佳谷面石塔)

◎ 傳神德王陵調査

지난번 盜掘되었던 傳神德王陵은 慶州博物館에 依하여 內部調査를 完了하였는데 그 結果는 大略 다음과 같다.

玄室과 羨道를 갖춘 墳墓로서 正南中央에 羨道가 있다. 玄室平面은 거의 正方形이며 一個의 屍床이 있다. 羨道는 玄室壁에서 六三cm 나와서 二枚板石으로 막았으며 門門의 裝置는 없다. 四壁은 地面에서 一·三m까지 垂直이다가 四面이 內彎되었으며 모두 灰塗하였다. 特別 注目되는 것은 北面에 六面과 東西面에 各三面計 十二面의 輪廓을 돌린 屏風 모양이 그려있고 이것을 다시 上下로 區分하여 二十四區를 만들고 各區에 黃, 藍, 朱色이 칠해졌는데 色의 配置는 無秩序하다. 外的 壁畫는 認定할 수 없었다. 크기는 다음과 같다.

平面東西南北 三·〇六×三·〇九×三·〇四×三·〇六m 高三·九一m 羨道 高一·二一m 同長二·二m 壁畫高一·三八m 同東西面幅各一·三七m

네 팔 紀行

黃 壽 永

네 팔은 秘密의 나라라고 하며 우리와는 國交도 없어 入國을 엄려하였으나 칼 劍타의 領事館에서 손쉽게 査證을 얻을 수가 있었다. 그리하여 最短距離를 생각하여 北印의 古都이며 比汗州의 首都인 파트나에서 往復키로 豫定하였었다. 一月二十七日이 곳 空港을 떠나자 恒河流域의 넓은 平野가 展開되었으며 잠시후에는 東北으로 멀리 雪山이 바라보였다. 처음에는 한줄기의 구름인가 하였더니 차츰 紫色 구름위로 약간 분홍색을 띤 雪白의 稜線이 注目되었었다. 機上에서 平野와 雪山을 번갈아 바라보면서 이곳을 舞臺로 삼았던 歷史와 宗教의 變遷을 생각하여 보았다. 不過 한 시간의 航路이었으나 未知의 나라를 찾아들은 興奮은 終日가시지를 斷 않았었다. 印度와 네 팔을 分界하는 山脈 하나를 넘어서니 山谷에 盆地가 展開되었고 주위의 丘陵위에 三層의 民家들이 오목오목 서 있는 首都 가 두만

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山間의 小空港에 나린 느낌이었는데 稅關吏들로서
투러 보였습니다. 航空會社의 안내로 코르베이손 호텔에 짐을 놓고 夕陽에 市内
를 걸어 보았습니다. 옛모습을 지니고 있는 中心街는 狹少한데 商店과 寺院들이
混在하고 있었으며 市民 以外에도 隣近山谷의 部落民들이 各其의 服裝으로 웅성
대고 있는 것은 珍奇하였습니다. 君主國인데 차차 民主改革이 마련되어가고 있
다 하며 東西強國과 印度의 틈바구니에서 外援의 德澤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中 印度와 關係는 더욱 緊密하여 風習과 宗教에서 印度의 北方一州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中共進出에 따라 對印 關係가 微妙하여졌고 印度政
府는 몹시 神經을 쓰고 있는 듯하였습니다. 호텔 저녁食卓에서는 우연히 倭館에
있었다는 美人을 만났는데 그는 韓國에서 古墳을 파서 土器를 얻었다고 자랑하
는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이곳가 두만두는 四千呎以上の 海拔이라고 하는 바
새벽에는 추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翌朝 일찍 人力車로 西郊의 스위암부나트寺를 찾았습니다. 小丘上에 자리잡고
있는데 路邊에는 野生의 원숭이가 出沒하여 사람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 寺院
은 圓形의 大塔을 中心으로 伽藍과 供養小塔이 周回하고 있는 바 이곳에도 避難
의 西藏人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故國을 떠나서 苦難을 겪고 있으나 淳朴한 氣
質과 敬虔한 禮拜는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大塔 四方에는 籠室이 마련되었으며
周垣에도 莊嚴이 있었는데 그보다도 塔頂의 金銅製 相輪은 塔高에 比하여 大形
이 있으며 露盤 四面에 人面을 그려 놓은 것이 奇異하였습니다. 또 頂上의 寶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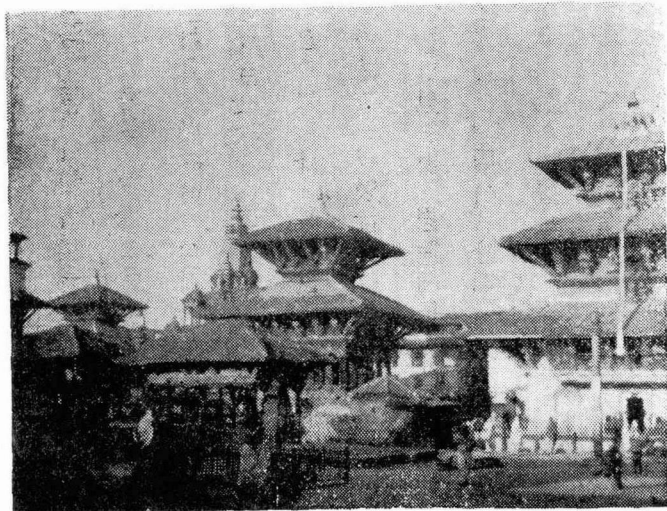


廢塔짜이부리 보안탄

가 中亞發見의 古畫나 日本玉虫厨子圖에 보
이는 寶塔의 것과 恰
似함은 古式을 간직하
고 있는 것으로 보였
습니다. 네팔은 오랜
鎖國과 保守의 나라로
서 印本土에서 자취를
감추어 버린 樣式을 간
직하였는데 이같은 細
部の 모습도 그 하나라
고 하였습니다.

이곳을 떠나 國立博
物館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唯一의 公開施
設이라는 바 武具王家
肖像畫 民俗品은 西館
에 있었고 東館에는 金
銅像(힌두教을 包含하
여)과 佛畫 등이 있었
으나 크게 注目된 것
은 없었습니다. 奇怪
한 多臂像과 歡喜像들
이 있어 印度와 西藏
과의 近緣을 보여 주
었습니다. 歸路에서는
市內가 眺望되었는데
方形多層의 樓閣式祠
院建물이 솟아 있는 모
습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風景이었으며
「寺寺星張 塔塔雁行」
의 文句를 연상케 하여 주었습니다. 이같은 特異建築의 殘留는 그 細部の 木彫
刻과 더불어 印度의 彰響이라 하겠으나 同時에 이 나라의 特色이라고 하겠습니
다.

午後에는 市東郊의 보드나트塔(寫眞上)을 보고서 人力車를 달렸습니다. 이 塔
의 基壇은 十字型으로서 四隅에 小塔이 配置되어 있었는데 相輪이 方形多層을 이
루고 있었습니다. 이 大塔은 上記한 스위암부나트塔과 더불어 伏鉢形印度佛塔과
同一한 樣式系라고 하겠는데 이곳에도 西藏人이 群集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떠
나 市内로 돌아오는 길가에서 廢塔(짜이부리 보안탄)을 보았는데 四方籠室(東方
은 降魔印 釋迦坐像)의 佛像彫刻 以外에 西쪽에 남아 있는 二基의 八角石燈은 처
음 보는 遺品으로서 우리나라 新羅石燈을 곧 연상케 하여 주었습니다. 이 塔 周邊에
는 石造塔像이 散亂하고 있어 이 나라 保存策의 現況을 보는 듯하였는데 이같은 狀



態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똑같다고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宿舎로 돌아오는 길에서는 山間住民의 珍奇한 風俗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귀에 形態를 따라 細環을 無數히 장식한 女子, 목걸이를 달은 男子, 칼을 차고 바지는 입지 않고 앞만 가린 男子... 그들은 바꾸니에 짐을 넣어 이마에 끈을 걸고 있었습니다.

一月二十九日 豫定을 당겨서 印度로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再入國의 수속도 이곳 印度大使館에서 前日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날은 아침 시간을 利用하여 과탄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宿舎房에서 아침해에 불어가는 白雪의 喜马拉雅 連峰을 볼 수 있었던 것과 과탄길에서 다시 壯嚴한 山容을 對할 수 있었던 것은 감명깊었습니다. 喜马拉雅山脈을 眺望할 수 있는 곳이 멀지 않다고 宿舎의 支配人이 勸告하였으나 貸切의 車費가 비싸기에 斷念하였는데 잠시나마 山峰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과탄에서는 人力車로 一시간, 주로 寺院을 돌아 보았습니다. 市場을 中心으로 배치되어 있는 힌두祠院(寫眞下)에서는 아침의 禮拜가 進行되고 있었습니다. 木塼의 高樓와 石造建物이 隣接하고 있는데 細部の 彫飾은 모두 우수한 것이었습니다. 此外에 골목길을 들어서 마하보다寺院에 이르러 테라코타로 쌓아 올린 高塔形寺院을 보았는데 印度佛陀伽耶의 大塔을 따르고 있는 樣式이 注目되었습니다. 이 建物은 近年의 地霜으로 崩壞되었던 것을 再建하였다고 하는데 印度에서 볼 수 있었던 아름답고 貴重한 遺構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北印과의 길은 關係에서 古代의 佛敎的 遺物과 遺法을 간직하고 있기는 하나 印度에서와 같이 佛敎는 衰頹하였기에 그 후의 宗教와 美術의 主潮는 힌두敎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北印과 西藏이나 元代佛敎의 交流를 — 나아가 元代와 高麗의 關係를 — 더듬게 하여 줌이 있을 것입니다. (佛陀聖蹟의 하나인 誕生地를 비니가 네팔國內에 있다는 地理的 條件은 北印과 印度와의 佛敎關係를 말하는 것이다. 古代의 佛塔이 保存되었고 木塼의 高樓形祠院이 — 現存하는 것은 거의 힌두敎에 속한다 — 特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나라의 訪問은 불과 二日間이었으나 처음 찾은 印度의 隣接國으로서 또 이번 旅行의 北端으로서 印象깊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十二時半 離陸한 印度航空機는 一시간안에 北印과 트나에 安着하였습니다. 入國手續이 간단히 끝나고 市内에 들어와 考古局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뉴델리의 韓總領事가 보내준 八通의 書信을 받고 춤이라도 출듯 즐거워 하였습니다. 구름하던 짐소식이 들어 있었으며 金館長과 同人 등 고마운 사람들의 소식이었습니다.

니다. 먼客地에서 出國후 四十日만에 처음으로 접하는 반가운 소식을 몇번이나 다시 읽으면서 호뭇한 감회에 잠길 수 있었습니다.

石窟庵通信 (十一)

鄭 明 鎬

一、工事關係

(1) 一重窟

前室에 덮혀 있던 假屋蓋를 解體하고 扉道入口와 前室左右壁에 保護壁들을 기었다. 窟外 一重窟 基礎部 整理作業중 舊排水路 밑에서 日帝重修時 設置한 排水鉛管이 露出되었다. (7.15) 窟後壁 突出岩盤(7.15)과 아치 위의 築石除去 開始(7.25) 鐵筋加工(7.15) 骨材(栗石·川砂) 運搬(7.19) 鐵塔建立(7.25) 窟北排水路底面과 一重窟 穹크리트基礎(8.3)와 配筋着手(8.3) 窟內와 一重窟間을 通할 珉트掘下作業開始(7.23) 이것은 氣象條件의 調節을 爲한 施設이다.

(2) 前室木造架構

承認된 設計圖面에 의하여 十分之二의 模型 七月十七日에 着手 八月三日에 完成을 보았으며 監督部와 林泉 李光奎氏가 檢討中임.

二、調査關係

七月八日 禮山修德寺를 調査한데 이어 孟仁在, 金周泰, 申榮勳諸氏는 江原道地方을 踏査하였다.

7.11 서울 → 洪城 → 杆城 → 東草 →

7.12 襄陽(洛山寺·虹峴·銅鐘) → 江陵 → 烏竹軒 → 海雲亭 → 客舍門 → 月精寺

7.13 月精寺(石塔·新造寶蓋) → 橫城(郡廳後庭石造物) → 서울

멤버를 바꾸어 孟仁在·鄭明鎬·申榮勳諸氏는

7.16 서울 → 稷山(弘慶奉先寺碑·石塔) → 大邱

7.17 大邱 → 桐華寺(極樂殿基壇·塼·其他 遺物) → 銀海寺(居祖庵靈山殿·三尊佛·石塔) → 慶州 → 石窟庵

다시 멤버를 交替하여 黃壽永·鄭明鎬·申榮勳諸氏는